

독일 GERMANY



독일 정부, 아동 성폭력 대처 강화 위해 독립 자문관 설치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독일 연방정부가 성폭력과 성 착취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 대상 성학대 문제에 대해 여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자문관(Unabhängigen Beauftragten für Fragen des sexuellen Kindesmissbrauchs, 이하 UBSKM)’을 설치한다.

2023년까지 운영되는 ‘독립 자문관(UBSKM)’은, 현재 연방 정부의 보호 및 지원 체계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성인지적 감수성이 반영된 사건 진상 규명과 성폭력 방지와 관련한 교육 활동도 지원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팀원과 예산을 지원받아 특별팀이 운영되며, 특별팀에는 연방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명예위원회도 꾸려질 예정이다.

독일 연방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독일 내 아동 성폭력 조사를 위한 독립 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이 위원회의 운영 시기도 ‘독립 자문관(UBSKM)’의 임기에 맞춰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독일 내 아동 성폭력 조사를 위한 독립 위원회’는 가정, 학교, 직장, 기관 등 독일 전역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범위, 원인과 결과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법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정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은 실태 조사와 함께 피해자와 주변 가족, 교사, 친구 등 지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개선되어야 하는 정부 지원 시스템을 연구 중이다.

연방 정부는 그동안 운영해온 ‘독일 내 아동 성폭력 조사를 위한 독립 위원회’ 활동과 동시에 ‘독립 자문관(UBSKM)’을 새로이 임명함으로써 아동 성폭력 피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프란치스카 기파이(Franziska Giffey)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주고 신뢰할만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연방정부의 임무이기 때문에 독립 자문관의 일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독일은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지원 체계를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발표 자료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dauerhafte-einrichtung-des-amtes-einer-eines-unabhaengigen-beauftragten-fuer-fragen-des-sexuellen-kindesmissbrauchs/130034>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상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위한 ‘100% 상담 캠페인’ 실시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독일 경찰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3,50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폭력과 착취의 희생자였으며 이 중 1,600명이 6세 미만이었다. 보고되지 않은 경우의 수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피해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소년과 소녀는 100만 명에 이른다. 이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담센터가 약 350곳 있는데, 더 많은 센터에서 아동·청소년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재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00% 상담^{100% für Beratung}’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 교외 등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한 상담이 이뤄지는 센터 추가 설치 ▲센터별 최소 4명 이상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재정 확보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주정부 예산 담당 부처와의 관계망 구축 ▲언어, 국적 등으로 인해 상담센터를 이용하는데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상담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 기금 조정 ▲전문 상담 컨설턴트를 위한 근무 조건 향상 등을 다루고 있다.

캠페인은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특별 전문 상담을 위한 연방 조정기관^{BKSF – Bundeskoordinierung Spezialisierter Fachberatung gegen sexualisierte Gewalt in Kindheit und Jugend}’이 이끌고 있다. BKSF는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후원하며, 독일 내 전문 상담센터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센터다. 구체적인 업무는 ‘전문 상담센터 실무자를 위한 여러 정책 관련 전문적인 정보 전달’, ‘새로운 상담센터 설립 및 확장 지원’, ‘상담센터 자금 운영체계에 대한 모델 개발’ 등이다. 이와 같이 BKSF는 센터 지원 기관이므로 개인 상담 서비스 지원하지 않으며, 현재 연방정부, 주정부와 협력해 더 많은 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참고자료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발표 자료
- <https://www.bmfsfj.de/bmfsfj/fachberatungsstellen-gegen-sexualisierte-gewalt-fordern-bessere-bedingungen/129626>
- 캠페인 홈페이지 <https://100pro-beratung.de/kampagne>
- BKSF <https://www.bundeskoordinierung.de>

프랑스 법원, 공공장소 성희롱 금지법 제정 이후 첫 벌금 및 실형 선고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프랑스에서는 올해 8월, 길거리나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 및 행동을 금지하는 법^{law against street harassment}이 통과된 바 있다. 본 법안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지나가는 여성의 외모나 복장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휘파람을 부는 등의 성희롱^{catcalling} 행위,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행위, 계속 여성을 따라오는 행위나 여성 몰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 등을 저지르는 것을 현장에서 단속할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벌금은 행위 유형 및 심각성에 따라 상이하며, 90유로에서 최대 750유로(한화 약 12만원~97만 원)에 이른다.

그리고 9월 처음으로 법원에서 실제 길거리 성희롱 피해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나왔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19일, 30세 한 남성이 파리 근교에 위치한 드라베이^{Draveil} 지역 내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21세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여성의 신체 사이즈에 대해 언급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당시 남성은 보기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 여성과 버스 기사에 대응이 적절했다고 알려졌는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며 버스 기사에게 알렸고, 기사는 경찰이 체포해 갈 때까지 출입문을 잠갔다고 한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300유로(한화 약 38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실제로 때린 것에 대해서는 실형 3개월을 선고했다.

사법부^{Ministry of Justice} 대변인이 한 언론을 통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 내 성차별주의적^{sexist} 모욕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프랑스의 첫 사례이다. 이번 공공장소 성추행 금지법 제정을 주도했던 마를렌 시아파^{Marlène Schiappa} 양성평등 정책 장관^{Minister for Gender Equality}은 이번 사건 이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 버스기사의 행동, 그리고 법원의 이번 판결에 박수를 보내며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성차별주의와 성범죄 문제를 종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고자료

- BBC (2018), "First street sexual harassment fine imposed in France," 2018년 9월 25일자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5643864> (접속일자: 2018년 11월 9일)
- France 24, "Frenchman jailed for slapping, insulting woman as new law takes effect," 2018년 9월 25일자 <https://www.france24.com/en/20180925-france-levies-first-fine-sexual-harassment-new-law-cat-calling-takes-effect> (접속일자: 2018년 11월 9일)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요구하는 여성단체의 캠페인 전개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공공장소 성희롱 금지법 제정 이후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벌금 부과한다는 점을 법률로 명문화 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본 법 자체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현실에서는 실제 법 이행에 있어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로 이러한 사건, 그리고 피해자를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경찰의 인식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들은 처음 직무훈련을 받을 때 이미 여성대상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되고 연차가 지나면서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연수를 받는다. 하지만 프랑스 여성단체들은 경찰 내 성차별적 태도,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같은 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가 만연하고 현재 연수훈련 모델은 이를 해결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러한 경찰의 인식 부족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여성대상 폭력 철폐를 주장하는 여성주의단체 Le Groupe F에서는 올해 3월부터 ‘Paye ta Police Pay your Police’라는 텀블러^{Tumblr} 페이지 및 트위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수천 명의 프랑스 여성들이 경찰관들의 성차별주의, 성희롱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부적절한 발언, 심지어 경찰로부터 성희롱적인 발언을 들었던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다. 처음 이 캠페인을 개시하고 약 열흘간에만 지난 5년여 간 겪은 사연 약 500여개가 올라왔다고 한다. 간략히 예를 들면 경찰이 지나가는 여성에게 “어이 이쁜이, 경찰차 탈래?” 라는 발언을 하거나, “그렇게 매춘부가 바를법한 립스틱을 발랐으면서 성폭행 당했다고 우리한테 와서 불평하지 마라” 라고 했다가,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공식적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한 남자 인생을 망치는 거다” 라며 공식 고소 및 수사절차를 포기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했다는 등이 있다. 이러한 수많은 여성들의 경험담은 앞으로 프랑스 사회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법 집행 당국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법이 시행된 지 아직 두 달 남짓 된 만큼, 앞으로의 이행 방향과 성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 France 24, "Are police equipped to deal with sexual harassment, or part of the problem?," 2018년 9월 25일자, <https://www.france24.com/en/20180924-police-equipped-deal-sexual-harassment-fines-institutional-sexism-france> (접속일자: 2018년 11월 9일)



미투운동이 미친 영향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조사 실시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페미니즘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인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아동 및 소녀들의 권리 신장 분야에서 활동하는 캐나다의 시민사회 단체인 플랜 인터내셔널(Plan International Canada)이, 사회조사기관인 나노스 서베이(Nanos survey)에 의뢰해 2018년 8월 30일 부터 9월 14일 까지 14세 이상 24세 이하 1,002명의 캐나다 여성을 상대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과 성에 기반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나 미투 운동이 성평등(gender equality) 이슈의 진전에 불을 지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번 조사는 캐나다 사회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성차별과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조사에 응답한 여성 1,002명의 중 72%는 주변인 중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6%만이 공공장소에서 완전히 안전함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2%는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약 80%는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응답자의 6%는 규칙적으로 빈번히, 70%는 종종 또는 드물게 성차별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디에서 성차별을 경험하는지를 묻은 질문에 대해 27%는 학교, 18%는 직장, 14%는 가족 또는 친구라고 응답하였다.

‘미투 운동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0%는 미투 운동을 성희롱 피해자를 지지하는 것,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성희롱을 근절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낙인을 지우는 것으로 운동의 의미를 이해하였으며, 13%는 성평등, 포용과 권리에 관한 운동으로 미투 운동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또한 해당 조사에 응답한 여성들 중 68%는 미투 운동이 미래에 성평등의 진전에 희망을 가지게 했다고 응답하여 미투 운동이 캐나다 여성들로 하여금 성평등이 진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페미니즘의 의미가 무엇이나’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34%가 ‘페미니즘은 성평등(gender equality)에 관한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15%는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와 동등한 기회, 존중에 대한 것’이라 응답하였다. 반면에, 9% 정도는 ‘페미니즘이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남성 폄하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응답했다.

‘성평등이란 무엇이나와 관련해서는, 다수(59.9%)의 응답자가 ‘성평등은 동등한 처우, 동등한 기회, 동등한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1%가 페미니즘 운동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페미니즘에 대한 공감 수준은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적으로 18세 이하의 응답자들은 성차별에 대한 자각 수준이 낮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공감 수준 (16-17세의 경우 42.8%만이 페미니즘 운동에 동조)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던 반면, 22-24세 응답자 중 68.3%는 페미니즘 운동에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정치 지도자들이 성평등 이슈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가’에 대해서도, 20세 이상의 응답자들 (22-24세의 경우 48.6%가 신뢰)이 18세 이하 응답자들 (14-15세 응답자의 32.4%가 신뢰)에 비해 높은 신뢰 수준을 보였다.

참고자료

- Huffpost, #MeToo Gives Young Canadian Women Hope For The Future: Study, https://www.huffingtonpost.ca/2018/10/11/me-too-movement-canada_a_23557942/
- Nanos, Girls in Canada: Gender Equality Today: Plan International Canada asks Canadian girls how they feel about the current state of gender equality and the impact of movements like #MeToo.
- <http://www.nanos.co/wp-content/uploads/2018/10/2018-1242-Plan-International-Populated-report-Updated-with-Tabulations.pdf>



확실한 동의없는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홍희정 울산대학교 젠더 연구 센터 객원 연구원

2018년 5월 23일 스웨덴 의회는 상대의 확실한 동의 없는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성적 동의법 Sexual Consent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스웨덴은 성적 동의법을 실시하는 10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스웨덴 성적 동의법은 다음의 5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첫째,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 여부가 강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다. 만약 상대방의 '말'이나 '명백한 자발적 참여'가 확실하지 않다면 모든 행위는 불법이 된다. 따라서 가해자가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등 강간을 행할 적극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유죄 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무력이나 위협에 대해 진술하지 않아도 되며, 반대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성적 동의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처벌을 확대하고 새로운 범죄 유형을 도입하였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특수강간 aggravated rape 형량은 최소 4년형에서 최소 5년형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과실 강간 negligent rape'과 '과실에 의한 성추행 negligent sexual abuse'을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도입하여 최대 4년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성범죄 재판 시 피해자의 신체적 성숙으로 인한 오인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넷째, 성행위에 자발적 참여 여부를 평가할 때,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 혹은 행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였다. 다섯째,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위한 자신의 권리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남성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스웨덴에서는 강간법 개정에 대한 대대적인 요구가 시작되었다. 당시 이 사건은 두 사람이 지인을 통해 식당에서 만난 후 술을 마시기 위해 남성의 아파트로 옮긴 후 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두 사람은 성행위 중 여성이 남성의 과격한 행위에 대해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으나, 남성은 여성의 소리 지름이 성 행위의 일부라고 판단했고, 오히려 더 과격하게 행동했다. 사건 이후 여성은 샤워를 하는 척 하면서 아파트에서 도망쳐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남성은 법원에서 여성이 거친 성행위를 즐긴다고 판단했으며, 여성이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성은 남성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에 더 이상 강하게 저항할 수 없었던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이로 인해 여성은 자신이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지게 되었고, 남성은 고의로 상대의 의도에 반하여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 이후 여성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에서 법원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사회 곳곳에서 강간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당시 녹색당 대변인인 오사 롬슨 Åsa Romson은 매주 집회에 참석하며, 강간 사건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참고자료

- <http://www.dagensjuridik.se/2014/02/36-procent-av-atalen-valdtakt-leder-till-friande-dom>
- <https://www.thelocal.se/20140124/momentum-grows-for-swedishrape-law-reform>
- <https://www.thelocal.se/20160419/how-researchers-want-to-reform-swedens-rape-law>
- <https://www.thelocal.se/20171218/swedish-pm-backs-new-sexual-consent-law>
- <https://www.thelocal.se/20180524/five-things-to-know-about-swedens-new-sexual-consent-law>
- <https://www.thelocal.se/20180524/sweden-votes-through-new-sexual-consent-law>

이러한 요구가 이어지자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스웨덴 내 강간 사건을 재조명하였으며,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간 사건의 기소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당시 룬드대학교의 프리다 올손(Frida Olsson) 교수의 강간 판결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든 사건 대비 강간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3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회민주당 대변인인 모건 요한슨(Mohn Johansson)은 “스웨덴에서는 매년 6,000건 이상의 강간 신고가 있지만 단지 수백 건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말하며, “그것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행동에 중심을 두는 판결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새롭게 출범한 페미니스트 정부는 새로운 성적 동의법을 지지했고, 새로운 법안을 위한 경찰력 확대(20억원 코로나 추가 예산 배정) 및 관련 예산을 확충(2018-2020년까지 7억 크로나를 배정)하는 등 오랜 준비 끝에 2018년 새로운 성적 동의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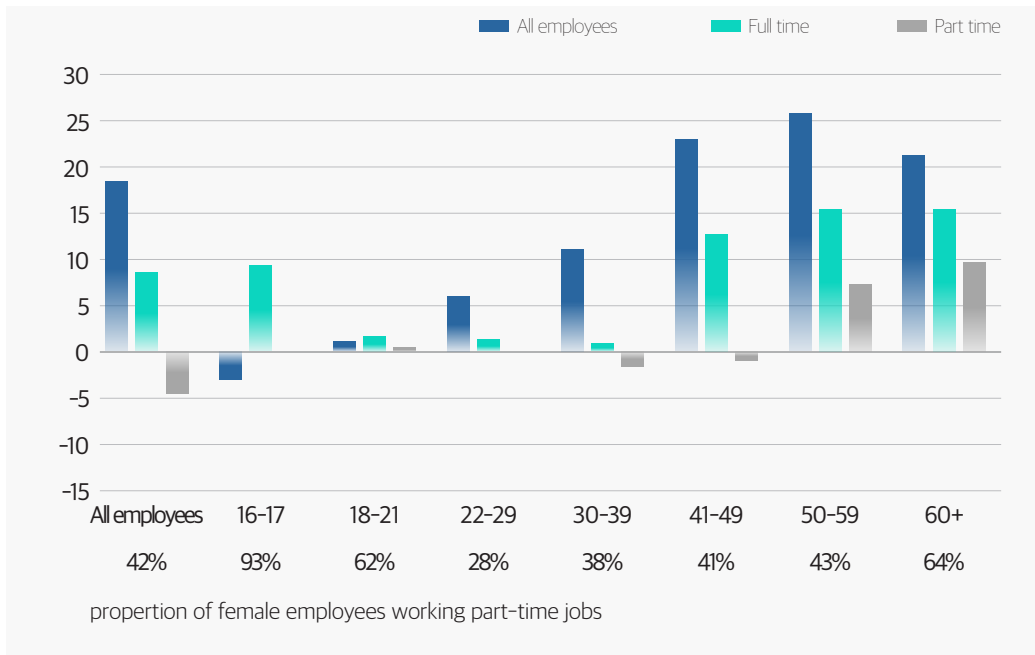
2018년 영국 성별 임금 격차 17.9%, 임시직 여성 노동자 정규직보다 임금 1.5배 낮아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과정

- 2018년 영국 성별 임금 격차는 17.9%로 지난해보다 0.5% 포인트 감소했다는 공식 통계가 발표됐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1% 포인트도 되지 않는 감소폭은 현실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어떻게 이 격차를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도록 정부가 압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10월 25일 영국 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2018년 영국 성별 임금 격차 Gender pay gap in the UK: 2018'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영국 성별 임금 격차는 17.9%로 지난해 18.4%였던 것에 비해 0.5% 포인트 감소했다. 성별 임금 격차가 17.9%라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이 수치만큼 더 적게 번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에는 영국에서 임금 관련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조사로 알려진 '시급 및 수입 연간 조사 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s, ASHE'의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는 지난해 9.1%에서 올해 8.6%로 0.5% 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18~39세 정규직의 경우 성별 임금 격차는 0에 가까워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가장 안정적인 근로 조건인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으나, 임시직 part-time 노동자의 임금은 성별간 여전히 18%를 웃도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 또한 성별 임금 격차를 주도하는 계층은 임시직 여성 근로자였다.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임시직 여성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9.36 파운드(한화 약 13,000원)로, 정규직 평균 시급이 14.31 파운드(약 2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임금이 1.5배 가량 낮다.
- 한편, 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연령별 성별 임금 격차가 두드러졌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39세 정규직 여성은 남성과 임금 격차가 거의 없는 반면, 40세 이상부터 이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40~49세 정규직의 성별 임금 격차는 12%가 넘었고, 50세 이상 정규직 여성도 남성보다 15%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전 직종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수치도 공개했다. 2010년 '표준직업분류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규정에 따라 직업별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임금을 많이 받는 직종을 찾지 못했다. 판매 및 고객 서비스직의 성별 임금 격차는 4.8%인 반면, 무역 관련 업종은 23.9%에 달했다.
- 영국은 올해부터 2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런 조치가 실제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보다 성별 임금 격차가 0.5% 포인트 감소한 것과 관련, 영국 노동조합들은 무시해도 될 정도의 미미한 수치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속도라면 여성 근로자가 남성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데 반세기가 걸릴 것이라며 우려했다. 영국의 주요 노동조합인 TUC의 프란세스 오그라디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26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성별 임금 격차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임금 격차를 줄일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8) "Gender pay gap in the UK: 2018" 2018년 10월 25일자,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arningsandworkinghours/bulletins/genderpaygapintheuk/2018> (접속일자 2018년 11월 14일)
- The Guardian (2018) "Gender pay gap narrows but TUC calls for greater pressure" 2018년 10월 26일자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oct/26/gender-pay-gap-narrows-but-tuc-calls-for-greater-pressure> (접속일자 2018년 11월 14일)
- <https://www.thelocal.se/20180524/sweden-votes-through-new-sexual-consent-law>



출처

-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arningsandworkinghours/bulletins/genderpaygapintheuk/2018>
접속일자, 2018년 11월 14일